# 이곳에서 더위 잊고 삽니다

**남구민의 건강한 여름나기 이모저모**

연일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철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더위를 식히고 있을까. '8월의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그들의 여름나기를 살짝 들여다봤다.

### 황령산 편백숲

더위를 식히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있을까. 황령산 바람고개 일대에 펼쳐진 편백숲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이다. 푸른 그늘이 드리워진 평평한 곳마다 돗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들로 넘쳐난다.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거나 누워서 낮잠을 즐기거나 책을 보거나 편백 숲이 주는 편안함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산에서 오다가다 만나 친구가 됐다는 우성욱(문현3동), 여동운(문현1동), 허진(대연3동)씨 등은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등산을 하며 건강을 다지고 있다. 땀을 흘린 후 숲속 벤치에 앉아 쉴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 남구도서관

최해경(49·대연5동)씨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수필, 소설 등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신간 위주다. 2주일에 3권씩 책을 읽다보면 어느새 더위가 싹 가신다고. 독서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것이 그녀만의 특별한 피서법이다.

이틀간의 휴가를 도서관에서 보내고 있다는 이임영(49·용호1동)씨. 컴퓨터 관련 업무라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공부하는 재미가 무엇보다 쏠쏠하다. 방대한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공부하는 아빠의 모습에 딸들도 덩달아 열심이란다.

### 부경대 캠퍼스

대학 캠퍼스도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숲을 이룬 곳곳에 쉼터가 마련돼 있고 벤치마다 지역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다채롭다.

부경대 후문 부근에 산다는 최양규(58)·이보금(55)씨 부부는 애견 순둥이를 데리고 매일 이곳을 찾고 있다. 담장을 허물고 개방되어 참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카메라를 의식한 듯 다양한 표정을 연출하는 순둥이의 모습이 귀엽다.

### 이기대 장자산 입구

이기대 순환도로를 따라 큰고개 쉼터에 다다르니 울창한 나무숲만큼이나 사람들이 빽빽하다. 특히 유하정(流霞亭)에는 바둑 삼매경에 빠진 현대판 신선들이 넘쳐난다. 말을 붙이기조차 조심스러운 그들에게 더위 따위는 초월해 보인다. 잠시 그곳에 머무른 것만으로도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하다.

### 평화공원 분수대

쭉쭉 뻗어 오르는 분수대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즐기는 아이들. 뙤약볕도 아랑곳 않고 깔깔거리며 뛰노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이다. 오늘 처음 왔다는 양현정(문현1동)씨는 15개월된 아들 태근이가 무척 좋아해 앞으로 계속 와야겠단다. 분수대 속을 오가며 흠뻑 젖은 채 까맣게 그을린 웃음을 날리는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벌써 가을이다.

분수대는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후7시부터 8시까지는 LED조명의 화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장관을 연출하는 평화공원 분수대야 말로 피서지의 백미가 아닐까.

이밖에도 남구 곳곳엔 알찬 피서지가 널려 있고 슬기롭게 더위를 이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한정미 기자

# "톡 쏘는 詩 쓰고 싶습니다"

### 용호3동 배 기 환 시인

### 한국해양문학상 우수상 수상

2010년 제14회 한국해양문학상에 배기환(60·용호3동) 시인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배 시인의 수상작 '불멸의 바다'는 바다를 소재로 한 연작시 43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생생한 현장감과 생동감이 돋보였다는 심사위원(위원장 김상훈)들의 평을 받았다.

배 시인은 97년 <시문학>지를 통해 등단했다. 시집으로 <전생을 굽다>, <바람의 화석>이 있으며 제10회 여수해양문학상 대상, 부산문학상 본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그가 그동안 한국해양문학상에 네 번째 도전해 이뤄낸 쾌거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경남 하동 출생인 그가 해양시를 쓰게 된 까닭은 어릴 적 외가가 있던 남해 서포만의 추억 때문이다. 시인은 그 바다의 강렬함을 유년의 감상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원초적 창조력을 지닌 여성 이미지로서 생태적 공간으로 나타내었다. 그러한 인식은 그에게 바다가 시상이 되었고 글의 중심소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의 시 '혼혈'에서, "첩첩산중에서 태어나신 아버지와 바닷가에서 태어나신/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내 몸 속에는 항상/바다가 출렁거리고 산이 우뚝 솟아있다."라며 "내 혈통을 제대로 보전하기 위하여/지금도 산과 바다가 맞물린 해안가에 둥지 틀고/산과 바다를 번갈아/오도독오도독 씹어 먹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그저 바다가 좋아, 격정적으로 춤추는 그 파도가 좋아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수부처럼 파도를 타며 시를 쓰고 싶었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힌 그는 스스로 야행성이라 부른다. 초저녁 짧은 잠을 자고 난 뒤 주로 한밤중에 시를 쓰게 되는데, 그에게 있어 시는 '삶의 위안'이며 '자기도취'라고 했다. 시가 있었기에 생의 희열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순을 넘긴 나이지만 좋은 시를 쓰기 위해 젊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그는 "톡 쏘는 시를 쓰고 싶은데 쉽지 않다. 자극적이고 그로테스크하며 에로틱한 시도 써 보고 싶다"라며 "앞으로 더 치열하게 글을 쓰겠다. 시의 본질을 살려 난해한 시가 아닌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시를 쓰겠다. 아울러 소설도 써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해양문학상은 매년 부산시·한국해양문학상 운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문인협회가 주관하며 대상 2천만 원, 우수상 7백만 원 등의 상금이 주어진다.

김정화 기자

■ 삶과 인생 – 20년간 텃밭 가꾸고 있는 문현1동 김양순 할머니

# 긍정적으로 살아야 '만사형통'

### 무공해 채소 가꿔 현장 판매

### 사람들과 대화 시간 가장 기뻐

먼동이 트기 시작 할 무렵이면 어김없이 김양순(79) 할머니는 집을 나서 일터로 향한다.

할머니의 일터는 문현1동 마을 동산 글로벌 유치원 근처 텃밭으로 20년째 이곳에서 땀을 흘리며 농사짓고 있다.

어느 약사가 케일 농사를 지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할아버지와 둘이서 시작한 농사일은 녹록치 않았지만 두 부부는 눈이오나 비가 오나 이곳에서 각종 채소를 키우며 1남4녀를 출가시켰다.

1500㎡ 남짓한 이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은 옥수수와 부추, 깻잎, 열무, 고추, 상추, 가지, 파 등 거의 모든 야채가 따가운 여름 햇살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곳 야채들은 황령산 기슭의 지하수로 재배된 무공해 야채. 이런 사실이 황령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현장에서 야채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산지직송 판매가 이뤄지는 셈이다. 할머니는 15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텃밭 가장자리에 조그마한 판매대를 설치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흑염소 두 마리도 함께 키우고 있었는데 얼마 전 13마리의 새끼를 출산해 할머니의 마음은 여간 흐뭇하지 않다. 텃밭은 단순히 야채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동네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묻는 사랑방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람들이 오가면서 누구누구 아들은 장가갔고, 아무개 딸은 명문대학에 붙었단다 등 동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돌아가는 세상이야기도 하고 사는 얘기를 하며 놀다 가고 있어요. 다 늙은 할망구가 뭐가 있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좋은 공기 마시며 정다운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낙에 살아요"

자식들에게 기대지도 않고 여든의 나이에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권 할머니는 너무 각박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안타깝다며 보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래야 만사형통이란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갈수록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김양순 할머니의 삶은 우리에게 신선함으로 다가온다.

김정희 기자

# 할머니 고봉밥이 그리워요

### 전국 농어촌문학상 대상 받은 문현여고 김 서 아양

문현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서아양이 전국 규모 문학상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서아양은 지난달 23일 저녁 광안리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0회 전국 고등학생 농어촌문학상 작품공모전시상식에서 수필부문 대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사)먹거리사랑시민연합이 주최한 공모전에서 서아양은 '고봉밥'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응모해 솔직담백한 문체로 농촌사랑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아양의 고봉밥은 어릴 적 할머니가 자신이 올 때마다 준비해 준 밥으로 손녀에 대한 할머니의 넘치는 사랑을 담은 작품이다.

수상소감을 묻자 "예상하지 못했는데 대상을 받게 돼 무척 기쁘고 모든 영광을 할머니에게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고3 이라는 스트레스를 글 쓰는 것으로 풀고 있다는 서아양은 교내에서 실시한 각종 독후감 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심리프로파일러가 꿈이라는 서아양은 "이번 수상을 통해 나만의 감성을 살린 글을 꾸준히 쓰는 한편 이를 위한 체계적인 공부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공경자 기자

보람에 산다 우일장학회

# 장학사업 통해 청소년들의 꿈 키워

### 96년 창립 기금 1억6천만원 조성

### 8천만원 장학금 전달하며 학업도와

우일장학회 임원진들이 장학금 전달식을 마친 후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로 창립 14주년을 맞은 우일장학회(회장 허유구)가 최근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적극 나섰다.

장학회는 지난 13일 오후 우암1동주민센터에서 강승모 동장, 각급 단체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관내 고등학생 12명에게 각각 30만원씩, 모두 3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허유구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면학에 힘쓰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조성한 장학금을 통해 더욱 학업에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학회는 지난해에도 상·하반기로 나눠 24명의 청소년들에게 720만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7천8백여만원의 장학금을 238명의 청소년들에게 전달해왔다. 재원은 장학기금 이자 발생분과 이사들이 기금을 출연해 마련했다. 한편 장학회는 지난 95년 한 기업체가 지역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1억원의 동발전기금을 내놓으면서 태동하게 됐다. 주민들은 1억원을 종잣돈으로 삼아 장학회를 발족하게 됐고 뜻있는 주민들이 기금모금에 동참하면서 장학기금을 늘려나갔다. 그 결과 1억6천만원이 넘는 기금을 마련해 남구지역을 대표하는 장학회로 성장했다.

장학회는 17명의 이사들이 똘똘 뭉쳐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데 분기별로 이사회를 열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학금 전달식이 있을 때는 이사들 스스로가 기금을 갹출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장학회는 더 큰 장학사업을 펼치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키로 하고 새로운 이사영입에 힘쓰는 한편 회원 확충에 전력을 쏟고 있다. ☎607-4814

**후원계좌·새마을금고 1410-09-001587-8 우일장학회**

# 민원인 대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 오 륙 도 친 절 지 기

### 대연1동 김동민씨

### 휴일에도 출근 민원해결 다반사

### 완벽한 업무 처리 고객감동 구현

대연1동주민센터에서 전출입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김동민씨(28·행정8급)는 2007년 10월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첫 발령지인 대연3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민원인들에게서 아낌없이 친절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이라는 좋은 인상을 남겼다.

"저 자신이 기분이 좋아야 민원인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도 잘 지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일과를 마무리하는 것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

민원인들이 작성한 친절엽서에도 김동민씨의 이런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잔잔한 감동을 준다. 민원인 김경숙씨는 아들이 군입대 중 인감이 필요했다. 강릉에서 군복무 중이라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휴무일이 겹쳐서 난감해 했었다. 동민씨는 그 다음날이 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출근해 아들에게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시간과 마음까지 민원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친절서비스를 베풀어 준 김동민씨에게 참으로 감사하다는 엽서와 함께 우리나라의 저력이 이런 분들 때문이라 믿는다며 김동민님 파이팅! 이라고 감사의 엽서를 보내왔다.

대연3동의 신정희씨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서 동주민센터를 찾았다. 자신도 서비스업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직원들의 업무태도 등을 눈여겨보았는데 김동민씨는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완벽하게 업무처리를 잘 해주었다. 민원인에게 건성이 아닌 진실 된 응대가 정말 최고인 것 같다고 꼭 '아주 친절한' 공무원으로 추천하고 싶다고 칭찬을 담은 엽서를 보내왔다.

민원인들의 칭찬엽서에 김동민씨는 다른 직원들도 모두 친절하다고 하며 겸연쩍은 미소를 짓는다. 업무처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단다. 되면 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설명 해준다. 상대방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잘 들어주고, 처리를 빠르게 하다 보니 칭찬을 듣는 것 같다면서 겸손해한다.

최정순 기자

# 남구걷기동호회 공인인증 받아

## 전문적인 교육으로 주민건강 증진 기대

부산남구걷기동호회(회장 한장석)가 지난 12일 (재)대한걷기연맹으로부터 걷기동호회 공인인증을 받아 대한걷기연맹 홈페이지에 공식 등재됐다. 이것은 지난 2009년 6월 창립된 후 1년2개월 만의 성과다.

국내 걷기운동을 총괄하고 있는 (재)대한걷기연맹에서의 공인인증을 받음으로써 앞으로의 동호회 운영에 한층 힘을 북돋는 계기가 됐다.

최근 걷기지도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한장석(60·문현4동) 회장은 "그동안 구민들의 꾸준한 참여로 어느덧 회원이 230명이 넘었다"면서 "이러한 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번 공인인증을 받게 된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09년 6월 창립된 부산남구걷기동호회는 현재 230여명의 회원들이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주간도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중 하절기(7~9월)에는 추가로 수요일에 야간 도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매번 모임 때 4~50명이 참석하여 남구지역 뿐만 아니라 부산일대의 걷기 명소로 소문난 곳에도 찾아가 걷기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아모레 퍼시픽 헤라·설화수 주부사원 모집
헤라·설화수 판매·상담 ☎ 627-2225
일하는 여성은 아름답다!
• 급여외 의료비, 경조비, 교육비 등 지원
• 메이크업 등 체계적 교육지원
• 10시 출근, 일·공휴일 휴무
• 기타 다양한 지원혜택
친절상담 → 최경숙 부장
주·야 직통상담 : 011-579-1122
아모레 퍼시픽 남부지점 T.627-2225